

6 기획-학생들 고정형 의자 불만

불편한 고정형 의자, 당장 교체는 어려워

이진구 기자 ljk6348@knu.ac.kr
양세빈 기자 abok29@knu.ac.kr

학생들이 강의실 의자에 불편함을 느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동 가능한 분리형 의자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움직임이 제한되는 고정형 의자가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용, 관리, 안전 장점 그러나 사용에 큰 불편

고정형 의자는 의자와 책상이 서로 연결된 ‘일체형 책걸상’과 의자가 바닥에 고정된 ‘바닥 고정형 의자’로 나뉜다. 학생들의 불만과는 별개로 고정형 의자에도 장점은 있다. 우선 고정형 의자는 관리와 간격 유지가 용이하다. 일체형 책걸상은 분리형의 경우보다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다. 특히 바닥 고정형 의자의 경우 서울캠퍼스(서울캠) 총무관리처 관제팀은 “바닥 고정형 의자를 설치하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기획조정처 예산팀은 “과거 중 대형 강의실의 경우 학생들의 시야 확보를 위해 강의실 후면에 계단을 뒀고, 낙상 등의 안전상 문제로 바닥 고정형 의자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고정형 의자에 대한 주된 불만은 허리 통증이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의자에 앉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자기 신체에 맞춰 의자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정형 의자는 책상과 의자 사이 간격을 조절할 수 없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고정형 의자에는 여러 단점이 존재한다. 앓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몸의 움직임에 맞춰 의자를 움직일 수 없어 불편을 야기한다. 고정형 의자에서 마주 보고 앓는 것이 불가능해 토론이 중시되는 현재의 교육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훨씬 더 진입할 수 없는 구조여서 거동이 불편한 학생에게는 큰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고정형 의자 중에서도 바닥 고정형 의자는 하나의 책상을 두고 좁은 간격으로 여러 명이 앓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변 통행을 어렵게 한다. 김아령(자율전공학 2022) 씨는 “가장자리에 사람이 앓아있을 경우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신아영(간호학 2022) 씨는



문화대학 305호 고정형 의자

(사진=양세빈 기자)

“바닥 고정형 의자의 경우 뒷자리에 앓은 사람과의 간격이 가까워 의자에 기대기 애매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학가 전반에 걸친 불만 우리학교 고정형 의자 다수 존재

고정형 의자에 대한 불만은 우리 학교를 넘어 대학가 전반에 형성돼 있다. 이미 서울시립대와 세종대는 지난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일체형 책걸상을 분리형 의자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숭실대는 현재 모든 강의실에 일체형 책걸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숭실대 관리처 관제팀은 “총학생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해 일체형 책걸상을 전부 교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대부분의 건물에서 고정형 의자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캠퍼스(국제캠)는 모든 건물에 고정형 의자가 있다. 그중 외국어대학은 “3개 중 2개 정도가 일체형 책걸상이다”고 밝혔고, 예술디자인대학은 “일체형 책걸상이 1층에 대략 100개, 지하 1층에는 100 개 이상 있다”고 전했다. 또 공과대학은 “21개 강의실 중 6개 정도가 고정형 의자다”고 말했다.

서울캠 내 고정형 의자 현황은 건물별로 차이가 있다. 호텔관광대학, 의과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은 고정형 의자가 없다. 반면 정경대학과 청운관은 각각 22개 강의실 중 14개, 43개 강의실 중 14개에 고정형 의자가 놓여있다. 문과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사용하는 16개 강의실 1,056석 중 7개 강의실 550석이 고정형 의자다. 간호과학대학은 “고정형 의자의 개수는 383개로, 전체 의자 대비 47.5%에 달한다”고 밝혔다.

학교도 불만 인지 조금씩 교체 진행 중 시간 걸릴 듯

학교 차원에서도 고정형 의자의 문제점과 학생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행·재정부총장실은 “2019년쯤 국제캠 총학생회에서 후마니타스 강좌를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적이 있다”며 “바닥 고정형 의자의 경우 의견이 엇갈려 그대로 뒀고, 가장 불만이 커던 4개 정도 강의실의 일체형 책걸상을 교체해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기획조정처 예산팀은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의 체격 및 생활 패턴이 변화했고, 이에 고정형 의자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효과 향상에 의문이 생겼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 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20대 인구의 평균 신장은 1997년에 비해 남성의 경우 2.9cm, 여성의 경우 1.5cm 커졌다.

이에 국제캠은 고정형 의자 교체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조정처 예산팀은 “(국제캠은) 멀티미디어교육관, 국제경영대학관, 공학관, 생명과학대학관, 전자정보대학관에서 고정형 의자 교체사업을 진행하며 점진적으로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하계방학 중 전자정보대학관과 공학관의 책걸상을 교체했고, 동계방학 중 추가 교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대적인 교체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고정형 의자 교체 사업의 첫걸음은 강의실 의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인데, 당장 이 부분부터 제동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 캠퍼스 총무관리처 관제팀은 의자를 자산이 아닌 소모품으로 분류해 세부적인 의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단과대학 행정실도 우리신문의 취재 이전에는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의자 현황을 파악한 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계단형 강의실에 있는 바닥 고정형 의자는 강의실 구조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체가 불가능하다. 평평한 강의실에 있는 바닥 고정형 의자의 경우 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철거 비용만 약 1,0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캠 총무관리처 관제팀은 “일체형 책걸상을 교체했을 때 약 30만 원 미만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청운관 행정실은 “강의실 공간은 한정돼 있어 책걸상 교체 시 강의실 수용인원이 줄어든다”고 전하기도 했다.

비용 및 안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책걸상을 새로 구입하거나 노후한 책걸상을 교체할 때 분리형 책상·의자만 구입하는 것이다. 더불어 강의실을 배정할 때 강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토론 등 학생들 간 교류가 필요한 수업에 분리형 의자 강의실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서울캠 총무관리처 관제팀은 “(상태가 불량한 의자를) 환경에 맞춰 분리형 또는 고정형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경대학 행정실은 “현재로는 강의실 배정을 할 때 수업, 행사, 동아리의 특성에 맞게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표했다.